

# 남·북의 출판교류를 바란다

홍운표

단국대 교수·국문학

북한의 학술 관계 출판물이 우리나라 학자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주로 복사물이나 영인본 상태로 알려졌기 때문에, 북한의 학술서적을 읽은 학자들도 그 원본을 직접 대본 사람은 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국제학술대회 관계로 중국의 조선족자치주인 연변 지역을 자주 왕래하면서, 북한의 학술서적을 연결시의 서점에서 구입하거나 친분관계가 있는 연변대학 교수들로부터 우편을 통하여 받거나 하는 일이 많다.

북한서적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내용은 둘째치고, 우선 책의 형식이나 출판기술들이 6.25 때 온 크라로부터 원조를 받아 만들었던 초등학교 교과서의 출판술을 연상하게 하였다. 물론 책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종이의 질이 너무 나쁘고 장정이 너무 허술해서 책을 읽다보면 곧잘 책이 되어버릴 정도이고, 활자들의 글자꼴도 세련되어 있지 않아 금세 싫증이 난다. 편집도 다양하지 않아서, 내가 컴퓨터로 편집을 하더라도 그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최근에는 각종의 사전, 예컨대 평양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나온 《조선말대사전》은 그런대로 질이나 활자 또는 편집이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사전에 비교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책을 국내 출판사에서 무단 복제한 책이 더 낫다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다. 컴퓨터조판을 한 지는 오래되는 것 같은데도 말이다.

출판물의 종류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출판물 종합목록이 간행되었는지, 또는 한국의 《출판저널》과 같은, 출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잡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출판사정이 썩 좋은 편은 못되어서 책의 간행이 그리 수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간행하는 책은 종이의 질부터 색도분해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책 못지 않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 책이 북한에서 인쇄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의 기술을 빌려서 인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일반서적 출판이 기술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어느 것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에 다 기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 학자로부터 최근에 40권으로 된 《지명사전》이 출판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책의 내용도 내용 이러니와 그 서지적인 형태도 몹시 궁급하다.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더 더욱 구해 보고 싶어진다.

남과 북은 아직 직접적인 학술교류가 매우 드물다. 그래서 결국은 책을 통한 간접적인 학술교류를 하는 셈인데, 이것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통일에 대비하는 중요한 준비작업 중의 하나가 곧 북한의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 것인데, 북한의 출판현황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 남과 북의 학술교류 중에 출판 분야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남과 북에서 《출판저널》 같은 잡지사 대표들이 만나 서로의 출판기술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요즈음과 같은 시국에서 볼 때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한갓 부질없는 공상일 뿐일까? ❖

초침 2 대형서점들, 신도시에 속속 분점 연다  
분당·평촌·부천 등에 대규모 들어서

해외도서전 4 세계의 지성이 모이는 문화잔치  
참관기 제48차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돌아보고

해외탐방 6 전세계 책벌레들이 찾아오는 명소-박상준  
영국 웨일즈 지방의 책마을 '헤이-온-와이'를 둘러보고

출판화제 8 외국 문호들의 전집 잇따라 결실  
괴테·카프카·푸쉬킨 등... 알찬 고전목록 기대

10 현대철학의 흐름 짚은 소개서 활발

11 유럽 단일시장의 문 두드린다

12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

이 책을 말한다 13 한국문화사의 주목할 만한 서지학-신복룡  
박대현 지음 《서양인이 본 조선》

출판계 소식 14 '96 우수학술도서 선정 발표  
15 '책의 날' 기념식 개최·외

책이 있는 에세이 16 책무덤으로 가는 길-김우중

책갈피 산책 17 이구열의 《한국문화재 수난사》를 읽고-반영환

책읽는 사람 18 5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며-정진국

재미있는 기획산책 19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정글북-장익순

종합서평 20 기억의 마술이 환기하는 세계-백지연  
신경숙·함정임·배수아의 소설집을 읽고

시집서평 21 고뇌에 찬 시인들의 '말장난'-차창룡  
남진우·윤의섭·이상호·백무산의 시집을 읽고

서평 22 최공호 《한국 현대공예사의 이해》-곽대웅  
칼루파하나 《불교철학사》-정병조

23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김명기

24 이만갑 《의식에 대한 사회학자의 도전》-임희섭

아이베스펠트 《사랑과 미움》-이형환

25 파커 《별에게로 가는 계단》-민영기

이 책 그 사람 26 《문화경제학 입문》 번역한 강응선씨  
《섹시한 세상을 기획하는 여자》 펴낸 채윤희씨

27 《밭굴이야기》 펴낸 조유전씨

《새벽의 집》 펴낸 문영미씨

새책 흐름 28 국문학 연구 영역의 심화와 확대·외 / 인문

30 다양한 화음의 영화책들 풍성·외 / 문화·어린이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이중환

표지 사진 / 박상준(관련기사 6면)

영국 '헤이-온-와이'의 책마을